

일주문

팔공산 승시축제 개소식
팔공산승시축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7월 15일 팔공산 씨네80 자동차극장 시설 단지 내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선시집 출간기념회
영천 죽림사 주지 법의 스님은 7월 17일 영천문화원에서 벌어졌 '농아라'와 선시집 '그날이 오늘같이' 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비움으로 행복찾기 진행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7월 20일 보신각 광장에서 제20차 비움으로 행복찾기 행사를 진행했다.

국제선센터 수능100 일기도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8월 1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능 100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

세계불교문화올림픽 환영법회
각황사 회주 능인 스님은 7월 18일 동대구 제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유치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캄보디아에 자비 씨앗 심다

천호희망재단 종산 고교에 교과서 등 전달

“세계일화에서 보면 캄보디아와 한국은 둘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천호희망재단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 원이 월서 스님(사진)이 캄보디아 오지를 찾아 자비보시행을 펼쳤다.

월서 스님은 7월 13일 캄보디아 오지인 소말리의 종산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교과서 9종 3000권, 노트와 필기도구 등 학습품을 전달했다. 이번 교과서 전달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승왕청 승왕 템플스님과 캄보디아 벽오지 마을에 국제교과서 지원계약 체결 후 첫 행사다.

월서 스님이 캄보디아 오지에서의 교육에 애착을 갖는 것은 은사인 금오 스님과 캄보디아와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월서 스님은 “은사 금오 스님이 1964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 그 인연으로 인해 다시 캄보디아에 오게 됐다”며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와 2003년 캄보디아 승왕청에서 템플 스님을 친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친견하니 건강해 매우 흐뭇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월서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문에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부처님의 눈부신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니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호희망재단의 이날 지원사업은 지난해 캄보디아 승왕청 외무 담당 스님이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을 위해 월서 스님 측에 요청하며 진행됐다.

캄보디아 도시지역을 제외한 벽오지 학교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교과서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과서는 초등의 경우 합본으로 학년 당 4권, 중등의 경우에는 4~9권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교과서는 권당 평균 1.6달러, 사전류는 권당 평균 15달러로 학교당 평균 2500달러가 소요된다. 천호희망재단은 매년 3만 6000여 권의 교과서를 오지 마을 50여 곳 초·중·고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템플 스님은 “캄보디아 외부지원으로 교육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한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교과서 지원에서 인재로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의 월서 대종사가 지원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월서 스님은 “최근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양국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불교계가 캄보디아 이주 여성은 물론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에도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봉신문 창간 29주년 기념식



7월 20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창간기념식 대법회 모습

1984년 일봉 서경보스님이 일봉법보로 창간해 1987년에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해 온 일봉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이했다.

일봉신문(발행인 서병열)은 7월 20일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대민안 평화통일 기원 일봉신문 창간 29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봉신문사 회장 도기 스님, 수석부회장 청운 스님, 사장 동봉 스님,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 종단총연합회 총재 의문 스님, (재)일봉선교종 원로의장 지공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지도자 및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불자연연 축하공연에 이어 진행된 기념 법요식은 연등사 도심 스님의 발원문 봉독과 흥천사 비천회의 유법공양, 고석 스님의 연혁보고로 진행됐다.

회장 도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봉신문의 뜻을 받들어 불법홍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제5대 사장인 동봉스님은 “일봉종자님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봉종자님의 유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임을 잊지말자”고 당부했다. (02)777-0959 노덕현 기자

〈인사〉 조계종 일반직 총무원 정기 전보 인사 단행

조계종은 7월 20일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및 팀장, 행정관, 주임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115명 인사 대상 가운데 25명이 전보 이동 조치됐으며 나머지 총무원은 유임됐다.

총무차장에는 김영일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포교차장에는 김상기 봉은사 총무실장, 불교사업단 사무차장에는 박용규 총무차장이 발령됐다. 황철기 포교차장은 중앙신도회로 파견됐다. 또 김상기 총무실장의 포교차장 전보로 공석인 봉은사 총무실장 자리는 총무원 총무부 박종학 사찰교무팀장이 파견됐다.

또 팀장급에서는 총무부 사찰교무팀장에 기획실 윤승환 기획팀장이, 기획실 기획팀장에 김용규 홍보팀장이 전보 발령됐다. 황충기 기획실 법무감사팀장은 재무부 재무팀장으로 김영주 재무부 재무팀장은 포교원 포교팀장으로 전보됐다.

전정훈 포교원 포교팀장은 기획실 법무감사팀장으로, 정유타 신도팀장은 문화부 문화팀장, 고명석 포교부 총무관은 포교원 포교팀장으로 전보됐다. 박정규 호계원 사무팀장은 기획실 홍보팀장으로 전보됐다.

또 행정관급에서는 성만재 총무부 사찰교무팀 행정관이 총무팀으로, 진준호 재무팀 행정관이 교육원 교육부로, 류창무 호법부 호법팀 행정관이 호계원 사무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 자신감 생겨나”

B-GEP 강의 22일 회향... 비구니 스님 15명 수료

“평가를 해봐도 좋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던 강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 세계화와 비구니 스님들의 국제 능력 배양에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사진)은 첫 ‘비구니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B-G.E.P)’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문을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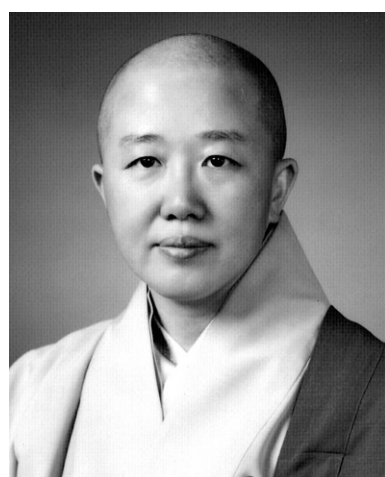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B-G.E.P는 12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업이 진행됐다.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한 요원들을 선발했기에 가능한 영어 원전 강독과 원어민과의 토론 등이 주된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에 국제 감각 배양을 위한 전문 교수진의 강의와 워크숍도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B-G.E.P는 글로벌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영어 이론 공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현장에서 대화·토론·발표가 가능한 실용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22일 열린 ‘B-G.E.P’ 프로그램 회향식을 끝으로 강좌를 수료한 스님은 모두 15명. 모두 출석률 70%와 개별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여러 기준을 통과했다. ‘B-G.E.P’을 수료한 스님들은 향후 국제선센터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와 보조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된다.

국제화 감각 배양 성과 정기 강좌 확대 계획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선센터도 국제 인력과 조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와는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명법 스님은 향후 B-G.E.P이 비구 스님까지 아우르는 국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아직은 정해 지지 않았지만, 정기적 프



명법 스님은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불교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조했다.

로젝트가 된다면 강좌와 인원을 확대해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비구 스님들도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모든 승가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회향식에는 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G.E.P를 수료한 불자 20명도 함께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금강대 김호중 씨, 정부 국비유학생 선발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7월 18일 졸업생 김호중(통상통역중어전공) 씨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한 2012 정부 국비유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김호중 씨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중국 지역연구 분야’에 지원해 유일하게 선발됐으며 9월부터 홍콩대(The University of HongKong) 중국 개발학 석사과정(The Master of China Development Studies)을 밟을 예정이다.

이로써 금강대는 지난 해 홍주연(영어통번역학과, 조지타운대 석사과정)씨 이어 2년 연속 한국정부 국비유학생을 배출하게 됐다. 김호중 씨는 “앞으로 국가의 지원에 보답하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선재포럼 사무실 개소... 본격 활동 시작

불교계 선진시민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단체인 선재 포럼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선재포럼(공동대표 박대성, 정상욱, 박시현)은 오는 7월 27일 여의도 엑스콘벤처타워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연다.

한편, 선재포럼에는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정상욱 前 대한불교청년회장, 박시현 前 천태종 청년회 중앙회장, 임병화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석오 前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주요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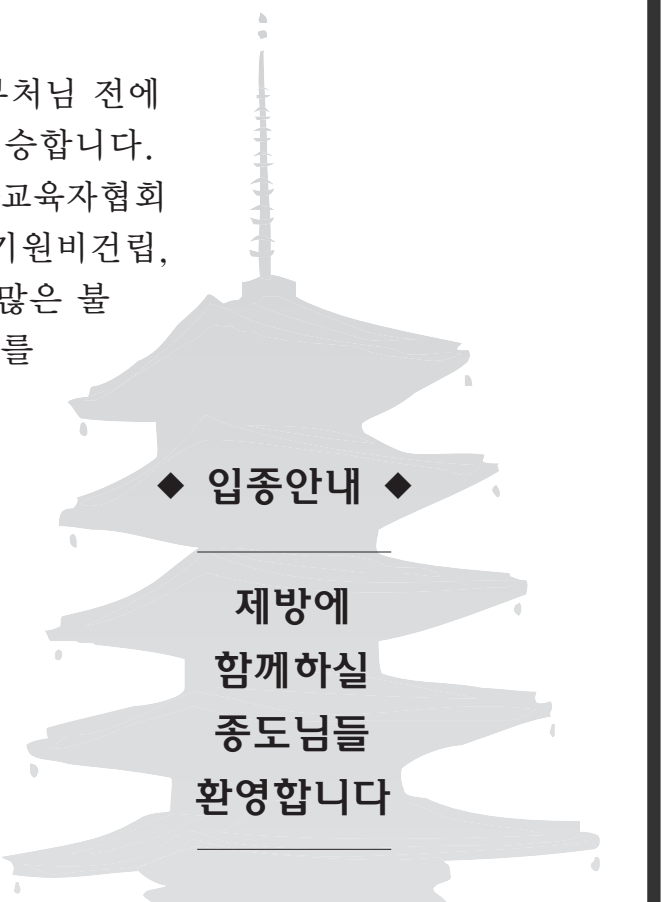
신종일 기자

선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창종 선포문

불법홍포와 수행정진에 매진하시는 제방의 청정승가와 돈독한 불심으로 삼보호지에 앞장서는 불제자 여러분들의 무운장구를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합장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한국불교종흥과 세계평화를 주창하셨던 일봉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합니다. 일봉존자께서는 1992년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을 역임하셨으며, 세계 전역을 다니시며 평화를 주창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평화교육자협회(IAEWP)에 의해 1996년까지 2회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고, 126개의 박사학위, 1,042권의 저서, 757개의 통일기원비건립, 50여만 점의 선필(禪筆), 최대 석굴법당 건립 등 5개 분야에서 기네스북에 오르신 금세기 최고의 석학 평화운동가로 지금도 수많은 불자와 후학들에게 생불로 추앙받고 계시는 존자님의 법통을 계승발전하고 흩어진 일봉 종도님들의 뜻을 한데모아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소승이지만 존자님을 도와 일봉선교종을 창종했으며, 초대 총무원장, 2대 종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존자님의 수행과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왔기에 한국불교종흥과 불교 세계화의 유훈을 실천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을 창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불제자 여러분의 뜨거운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린종단·개혁종단·교육종단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56(2012)년 7월 24일 11시 힘찬 봉정만리를 시작하려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종정 법담 정각 합장



입종안내

제방에 함께 하실 종도님들 환영합니다